

스스로 생태탐험교실 조류관찰키트 중 스티커 속의 새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스스로 생태탐험교실 (조류탐구-산새편)



① 오색딱따구리 (털새)

- (크 기) 24cm
- (특 징) 몸 윗면은 검은색, 어깨깃에 뚜렷한 V자형 무늬
- (먹 이) 곤충, 열매 등
- (사는곳) 공원, 야산, 숲



② 멧비둘기 (털새)

- (크 기) 33cm
- (특 징) 진한 회색 날개덮깃의 가장자리는 붉은 갈색, 날개를 접으면 얼룩무늬
- (먹 이) 나무열매, 씨앗 등
- (사는곳) 숲, 개활지, 농경지, 공원



③ 큰부리까마귀 (털새)

- (크 기) 57cm
- (특 징) 부리가 두툼하며, 머리와 부리가 급한 경사를 이룸
- (먹 이) 동물사체, 열매 등
- (사는곳) 산지, 인가 주변, 농경지, 개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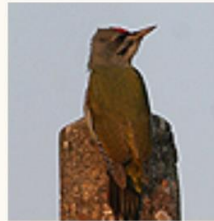
④ 파랑새 (여름철새)

- (크 기) 29.5cm
- (특 징) 몸은 푸른 녹색이며, 머리와 날개 끝은 검은 색
- (먹 이) 곤충 등
- (사는곳) 숲, 개활지, 농경지



⑤ 까치 (털새)

- (크 기) 46cm
- (특 징) 대표적인 텃새로 녹색 광택이 나는 긴 꼬리가 있음
- (먹 이) 곤충, 나무열매, 곡식류 등
- (사는곳) 우리나라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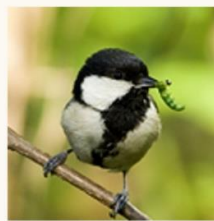
⑥ 청딱따구리 (털새)

- (크 기) 30cm
- (특 징) 등은 연한 녹색이며, 머리와 배는 무늬없는 회색
- (먹 이) 곤충 등
- (사는곳) 공원, 야산, 숲



⑦ 쇠박새 (털새)

- (크 기) 12cm
- (특 징) 머리꼭대기가 광택이 있는 검은색
- (먹 이) 곤충, 열매 등
- (사는곳) 숲, 정원,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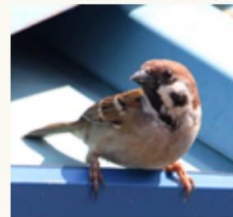
⑧ 박새 (털새)

- (크 기) 14cm
- (특 징) 대표적인 산림성 조류로 뺨이 흰색
- (먹 이) 곤충, 열매 등
- (사는곳) 우리나라 텃새



⑨ 곤줄박이 (털새)

- (크 기) 14cm
- (특 징) 머리꼭대기에서 뒷목까지 검은색, 뒷목 옆은 누런 흰무늬
- (먹 이) 곤충, 열매 등
- (사는곳) 숲, 정원, 공원



⑩ 참새 (털새)

- (크 기) 14.5cm
- (특 징) 암수의 무늬가 같고, 등은 갈색에 검은 줄무늬
- (먹 이) 곤충, 곡식류 등
- (사는곳) 농경지, 마을



스스로 생태탐험교실 조류관찰키트 영상교안 속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1. 박새와 청딱따구리

◎ 박새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 대표적인 산림성 조류
- 크기 : 14cm
- 배에 검은 넥타이를 맨 것 같은 무늬
- 양쪽 뺨이 흰색

◎ 청딱따구리

- 발톱이 앞쪽에 두 개, 뒤쪽에 두개가 있음. 나무를 기어올라야 해서 발톱이 다른 새들과 다르게 생김
- 크기 : 30cm
- 등은 연한 녹색, 얼굴과 몸은 무늬가 없는 회색
- 둥지 만들 곳을 찾아 나무를 두드릴 때 '두두두두' 소리(드리밍 소리)를 냄.

2. 새들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

- ◎ 식물의 수분을 돕는 역할 : 꽃을 피운 식물이 열매와 씨앗을 맺도록 수분을 돕는 역할
- ◎ 식물의 분산 역할 : 식물이 열매를 먹은 새가 다른 곳으로 이동 후 배설하여 다시 싹을 틔우는 식물의 분산 역할
- ◎ 작물을 보호하는 역할 : 해충을 먹이로 먹어 작물을 보호하는 역할
- ◎ 청소부 역할 : 죽은 동물의 사체 등을 먹어 치우는 청소부 역할

3. 조류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물품

- ◎ 쌍안경 : 멀리 있는 새를 확대하여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광학 기계
- ◎ 조류도감 : 새의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실물을 대신 볼 수 있는 책. 새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 수 있어 관찰한 새를 찾을 때 사용

4. 조류 충돌 사고

연간 우리나라에서 800만~1000만 마리 새들이 유리창 충돌로 폐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투명 유리창과 부딪혀 폐사하는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5x10규칙'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는 안구가 측면에 위치해 원근 구별을 위한 시야 범위가 좁아 유리창에 충돌합니다.
이에 '5x10규칙'은 수직으로 5cm, 수평으로 10cm 간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류가 이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합니다.